

‘록색’ 향해 가는 ‘변방의 명주’, 곳곳이 아름답다

—훈춘시 생태문명 건설 지속 추진



훈춘 경신습지를 찾은 철새

/ 김성길 씌움

최근년간, 훈춘시는 생태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생태효익의 경제효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친환경적이며 백성이 부유’한 록색 저탄소 순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훈춘시 마천자항 남산화해관광원에 들어서면 답답하고 청신한 향기가 코를 찌르고 분홍색, 노란색, 흰색의 백합꽃이 햇빛을 받으며 바람에 하느작거린다. 꽃술에서는 나비, 벌들이 춤추고 관광객들은 여유롭게 그 속을 거닐고... 한쪽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화를 이룬다.

“우리의 꽃재배기지 면적은 20헥타르에 달한다. 생화를 주로 판매하며 제품은 이미 장춘, 북경 등 많은 도시에 판매되고 있다.”

남산화해관광원 책임자 조옥상이 말한다. 록색, 지속가능 발전 산업으로 꽃재배는 원가가 낮고 효익이 빠르며 향촌의 독특한 전원 풍모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생태문명 건설 시범구’로서 훈춘시는 한편으로는 꽃구경 경제를 발전시켜 관광지와 도시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생산액을 증가시켰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생태농업, 농업관광, 향촌민박, 특색민속촌 등 특색 향촌관광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승급시켜 ‘록색청산’을 ‘금산은산’으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망한 ‘전경’(钱景)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훈춘 경신습지는 철새들의 이동중 중요한 서식지중의 하나이며 중국 중점 조류보호구역과 중국 철새 3대 이동통로중의 하나이다. 매년 봄과 가을이 오면 경신습지는 여러 강들이 서로 관통되고 호수가 서로 연결되어 수많은 철새들을 맞이한다. 훈춘시립업국의 관측에 따르면 이곳에 머무는 기러기, 두루미, 흰꼬리바다수리, 호랑이바다수리 등 철새는 6백만마리에 달한다. 그중 국가 1급 보호 조류는 11종, 국가 2급 보호 조류는 37종에 달한다.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희귀조류는 촬영애호가들에게 끊임없는 창작소재를 제공한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여와 통산호 기술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사타를 눌러 희귀조류가 춤추는 멋진 순간을 포착한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고품질 생태환경 건설에 공을 들여 깨끗한 하늘, 청신한 수역, 청결한 토양, 청산 초원

습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등 중점 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했다. 동시에 이주물새 동시조사, 중화추사소리 안거공정 등을 깊이 실시하고 ‘세계 야생동물의 날’, ‘조류 사랑 주간’, ‘교실 속 자연수업’ 등 특색주제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여 전사회가 야생동물 보호에 광범하게 참여하는 내생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추진했다.

현재는 동북 범과 표범의 중요한 성장기와 육아기이다. 훈춘 북부에 위치한 료야령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깊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천지공’ 일체화 감시시스템의 적외선카메라에 새끼동북범 두마리와 어미동북범 한마리가 포착되었는데 새끼동북범은 기술을 과시하듯 뒤구르기를 하면서 서로 뛰놀다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야와 순찰을 할 때 야생동물과 자주 ‘뜻밖의 만남’을 가진다. 꽃아슴이 무리를 지어 숲속을 누비고 노루들도 저희를 보며 놀라지 않는다.” 동물보호사업에 10여년간 종사해온 훈춘시립업국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가 최근년간 름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중점적인 핵심구역으로 다년간 훈춘시는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고품질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부문련석회의제도를 내고 ‘청풍행동’, ‘청산청투’(淸山淸套) 등 야생동물 불법 사냥과 거래를 단속하는 특별행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야생동물 개체군이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생물다양성이 날로 풍부해지게 했다.

수치에 따르면 훈춘시는 환경 공기우량일 비례가 일년 내내 98% 이상을 유지하고 삼림피복률이 86%에 달하며 수원지의 수질 기준 도달률은 100%에 달한다. 야생동물 자원인 1,270여종에 달하고 야생 동북 범과 표범의 분포 수량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생태환경 상황 지수는 다년간 연속 길림성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훈춘시는 생태보호와 경제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오염예방퇴치와 생태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확고부동하게 록색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고품질 생태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뒤희잡고 있다. / 길림일보



장춘과 길림 ‘무폐도시’ 건설

일전, 장춘시정부와 길림시정부는 <‘무폐도시’ 공동건설 전략협약>를 체결했다. 이는 두 도시의 ‘무폐도시’ 공동건설의 새로운 모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 성적인 ‘무폐도시’ 공동건설의 새로운 국면의 개척을 의미한다.

2022년 4월, 국가 ‘14.5’ 기간 ‘무폐도시’ 건설 명단에 선정된 이래 장춘시와 길림시는 ‘무폐도시’ 건설에서 적극적인 진척을 거두었다. 이 협약의 체결은 두 지역 정부, 기업과 사회각계의 협력을 일층 강화하고 량호한 산업생태를 함께 육성하며 우리 성의 생태 우세, 자원 우세가 경제 우세, 발전 우세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장춘시와 길림시는 지

역 교류 협력의 강화, 위험폐기물 ‘점대점’(点对点) 지정 리용, 위험폐기물 환경위험 예방통제, 록색생활방식 공동 실천, 감독관리 련동 강화 등 다섯가지 면에서 깊이있는 협자를 전개하여 ‘아름다운 길림’ 건설에 공동으로 힘을 기여한다.

다음 단계에 장춘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생태강시’의 건설 리념을 둘러싸고 산업 공동육성, 생태 공동보호, 기초시설 공동건설, 브랜드 공동창조, 봉사 공동향수 등 면에서 지역간 련동 협력을 전개한다. 동시에 속지 생태환경부문의 위험폐기물 일상 감독관리와 허가증 면제 관리(许可证豁免管理) 성과에 대한 추적 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폐기물의 위험

을 예방통제하며 특수 유형의 위험폐기물 처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 수거, 전이, 운반 체계를 보완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건축자재 제조 등 산업의 공생지역 발전 모식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축전지, 유색금속, 사용 가능 부품, 재가공 가능 부품의 회수 리용을 촉진한다. 다지역적으로 위험폐기물을 불법 수집, 전이, 투기, 처리하는 위법범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폐도시’ 건설에서 전력을 다해 장춘 본보기를 구축한다.

길림시는 장춘시의 정책, 자금, 과학기술 등 우세를 빌어 폐차 해체, 폐기플라스틱 회수 및 가공, 폐기다이어 회수와 리용 등 면에서 장춘순환경제

산업단지와 협력을 전개한다. 길림시는 위험폐기물 처리 산업구조의 우세를 발휘하여 장춘시의 위험폐기물 처리에 협동, 환경위험의 발생을 예방통제한다. 동시에 생활쓰레기, 건축쓰레기, 재생자원, 공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등 면을 둘러싸고 장춘시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며 강력하게 운영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산업 대상의 우세를 보완하는 것을 견지하고 환경집법 협동 련동을 견지하여 경제효익과 생태효익의 윈윈을 실현하고 이로부터 ‘무폐도시’ 장춘-길림 일체화 협력 공동건설을 실현한다. / 길림일보



1월—7월 연변 공기 질 지속 개선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에서 길림성 공기질 온라인 검측관리 플랫폼의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이 연변의 전반 공기 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연변 중심도시(연길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31일(우수 일수 20일, 량호 일수 11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100%로 전년과 같다. 주요 오염물 가운

데서 PM10(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는 립방메터당 28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마이크로그램 상승했다. PM2.5(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립방메터당 17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8마이크로그램 상승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연길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210일(우수 일수 122일, 량호 일수 88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8.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

승했다. 주요 오염물 가운데서 PM10의 평균 농도는 립방메터당 37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1마이크로그램 하락했다. PM2.5의 월평균 농도는 립방메터당 21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과 같다.

기타 현(시)의 경우 도문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212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9.5%이며 룡천시, 왕청현의 공기 질 우량일은 210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8.6%에 달했다. 훈춘

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209일(유효 일수 212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8.6%이며 안도현의 공기 질 우량일은 209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8.1%에 달했다. 돈화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207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7.2%이며 화룡시의 공기 질 우량일은 206일(유효 일수 212일)이고 우량일 비례는 97.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연변일보

전국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사업 배치

민정부, 재정부는 최근 련합으로 <전국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사업 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구제의 단일한 물질구제로부터 ‘물질+봉사’ 종합구제 모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이 ‘격조하고 애로를 느끼며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요가 있는 저소득 인구층을 위해 맞춤형 돌봄봉사, 생활봉사, 관심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주도, 사회 참여를 견지하면서 정부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력량이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수요 지향성, 정확한 정책 마련을 견지하고 저소득 인구층의 구조봉사 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각종 정책과 자원을 정확하게 련계시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행동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현지의 실제에 립각하여 기본 봉사 수요에 초점을 맞춰 봉사류 사회구제 대상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시범 임무에는 봉사류 사회구제 수요 평가체계 수립이 포함되는바 상시적으로 수요 파악과 배제 조사를 전개해야 한다. 봉사류 사회구제 목록을 작성하고 기존의 기본공공봉사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여 골고루 고려함으로써 봉사 대상과 기본 내용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구제봉사망을 구축하고 각층의 자원을 통합하여 봉사류 사회구제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한다. 봉사류 사회구제사업 보루를 건설하여 구제봉사를 조직하고 실시하기 위해 플랫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금 다경로 보장 기제를 구축하여 봉사류 구제사업의 지속적이고 질서 있는 전개를 확보해야 한다.

신화사

기차역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 1:2!

최근 국가철도국은 엄중 기준 공

고를 발부, 현행 <철도승객역 설계 규범>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며 철도승객역 기획 및 건설을 일층 규범하는 동시에 발부한 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중 새로 개정한 <규범>은 철도승객역 남녀 화장실 설치 요구와 표준을 명확히 했으며 승객들의 출행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다.

새로 개정한 <철도승객역 설계 규범>은 남녀 화장실 변기 개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고 대합실내 화장실 변기(소변기 제외) 개수를 최고 대기 인수에 따라 100명당 2.5개로 설치하며 남녀 화장실 변기 개수 비율은 1:2로 하고 남자 화장실 변기(소변기 제외) 개수는 최소 3개 이상,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개정된 <규범>은 또 초대형, 대형 철도승객대합실(청)은 면적이 크고 승객의 이동거리가 멀기에 화장실을 인원이 밀집된 지역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화장실 변기 개수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것을 제언했다. 동시에 새로 개정한 <규범>은 관련 내용을 더 세분화시켜 출구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사항에 추가하고 남자 화장실 변기 개수는 1개 이상,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개정된 <규범>은 철도승객역 건설의 원칙과 부지 선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승객역의 건물면적 지표취값(建筑面积指标取值)을 수정해 철도승객역의 건설을 더욱 표준화했다. / 인민넷-조문판

안도의 한 산간마을에 공유전기차 등장

“우리 촌에도 공유전기오토바이가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로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탈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안도현 송강진 문창촌, 공유전기오토바이들이 가지런히 세워져있고 부근에 거주하는 여러 군중들이 공유전기오토바이를 타려고 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이러한 편민 조치에 문창촌 촌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투입된 공유전기오토바이는 총 150대에 달한다. 송강진 및 운영 기업은 ‘실정에 맞게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원칙에 따라 초보적으로 공유전기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15개 장소를 설정했는데 송강진의 주거단지, 광장, 학교,

위생원 등 구역을 기본상 피복해 군중들의 저탄소 록색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촌민들은 공유전기오토바이 사용 시 보증금 없이 자전거에 부착된 QR 코드만 스캔하면 잠금을 해제하고 탈 수 있다. 동시에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전자 울타리를 설치하고 오토바이가 지정된 공간에 진입한 후에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 하여 공유전기오토바이의 복귀를 보장한다.

공유전기오토바이의 투입으로 송강진 사람들은 출행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게 되었다. 이는 송강진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록색 저탄소 출행을 제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정현관기자

장백현, 12 쌍의 청년들 커플로



일전, 백산변경관리지대와 백산시 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장백변경관리대대에서 주관한 경찰과 지방 녀성 청년들 사랑 맺기 주제 활동이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장백변경관리대대의 나젊은 경찰들과 장백현내 당정기관, 사업단위, 기업에서 온 40명의 우수한 녀청년들이 활동에 참가했는데 그중 12쌍의 남녀 청년들이 노래와 민속무용, 유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커플로 되었다. / 리준량(李俊良), 등호(邓豪), 교패현(矫佩軒), 최창남

